

북한 모음 /ɯ/ → /i/에서 발견되는
과잉교정 현상*

The Hypercorrection of Vowel /u/→/i/ in North Korean Dialects

강 순 경**

(Kahng, Soon-kyong)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ether the phenomenon of /u/→/i/ is a hypercorrection or not in the North Korean dialects. Most North Koreans pronounce /kim/(gold) as /kum/ because the vowel /i/ merges into the peripheral vowel space of /u/ in their dialects. The merger of back vowel is one of most distinctive characters in North Korean dialects.

But some speakers pronounce /chubanŋ/(exile) as /chibanŋ/. This time /u/ in peripheral space moves to /i/ in central vowel space. It seems that the vowels /i/ and /u/ exchange places with each other when they uttered in North Korean. Though it was observed that the vowel movement of /i/→/u/ was caused by the merger of back vowels, the reason why vowel /u/ moves in the opposite direction, that is, the central space of vowel /i/ has not been analyzed yet. This experiment starts with hypothesis that the movement of /u/→/i/ might be caused by hypercorrection.

The first step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u/→/i/ pronunciation of North Koreans. The second step is to compare the results of North Korean pronunciation with those of South Korean pronunciation and observe whether tendency of /u/→/i/pronunciation can also be found in the standard Seoul dialect and other South Korean dialects.

keywords: hypercorrection, back vowels, North Korean

I. 서 론

이 논문에서는 일부 북한 화자 발음에서 발견되는 모음 /ɯ/→/i/ 현상이 과잉교정(hypercorrection) 현상인가의 여부를 실험 음성학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 환경적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필자의 연구(1999a)에서 이북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금”을 “굼”으로 “그들”을 “구들”로 발음하는 것은 모음이 /i/→/ɯ/ 방향으로 움직이는 융합 현상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 이 논문은 1998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그러나 이 현상과는 반대로 일부 이북 화자들에게서 “후방”을 “호방”으로 “추방”을 “츠방”으로 위의 현상과는 역방향으로 발음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융합 현상인 모음 /-/가 모음 /ɪ/로 잘못 발음한 것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발음 오류, 즉 과잉교정 현상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북한 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가 아니면 남북한 전체의 말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인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실험 대상자를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화자 들 이외에도 남한의 서울, 경상도, 전라도 화자들을 선발하여 발음을 분석한다.

과잉교정이란 주로 지역 방언 등 비표준말 화자에게서 자기네 음운체계내에 특정 음소의 결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현상으로 화자가 어느 특정한 발음을 다른 발음으로 대체 잘못 발음하게 되며, 이 경우에 이렇게 잘못 발음한다는 의식이 지나친 나머지 고치지 않아도 될 다른 발음을 고쳐서 발음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과잉교정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화자가 어느 특정한 발음을 다른 발음으로 잘못 발음하는 실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A/를 /B/로 대체 발음한다면 /A/→/B/로 표시한다. 그러나 전자의 발음 오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적으로 또 다른 발음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오류는 첫 번째 것과는 역방향인 /A/←/B/로 나타나며 이것을 과잉교정이라고 부른다. 과잉교정을 일으키는 전제적 발음의 오류는 해당 방언 화자들의 발음에서는 거의 항상 일어나는데 비해서, 과잉교정은 특수한 환경적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과잉교정의 예로 우리 나라 경상방언에서는 /ㅍ/을 /ㅍ/으로 대체 발음(/ㅍ/→/ㅍ/)하여 “쌀”을 “살”로 “싸운다”를 “사운다”로 대체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화자에 따라서는 역방향(/ㅍ/←/ㅍ/)으로 /ㅍ/를 /ㅍ/으로 발음하여 “소나기”를 “쏘내기”로 “성낸다”를 “썩낸다”로 발음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현상이 과잉교정이다.

Morris Halle와 William J. Idsardi(1997)에 의하면 미국의 동부 Massachusetts 사투리에서는 /r/을 빠뜨리는 발음을 하여서 “I parked my car in Harvard Yard.”라고 할 것을 “I pahked my cah in Hahvahd Yahd.”라고 발음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화자들에게서 반대로 /r/을 첨가시키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spa”는 “spar”로 “tuna”는 “tuner”로 잘못 발음하는데 후자가 과잉교정이다. 이러한 /r/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적 조건은 주로 저모음(non-high vowel) 다음에 발생한다. 그 결과로 미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spa”와 “spar”, “tuna”와 “tunner”를 구별하지만, 동부 매사추세츠 사투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두 단어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ɪ/→/ɪ/와 /ɪ/←/ɪ/ 현상에는 차별화를 하는데 어떤 음운 현상이 /ɪ/→/ɪ/일 때는 대체 발음이거나 또는 융합 현상으로 보지만, 만약 반대로 /ɪ/←/ɪ/로 역방향으로 표시될 때에는 /ɪ/→/ɪ/에 뒤따라 발생하는 과잉교정으로 본다.

이 논문에서도 이북 화자의 /ɪ/→/ɪ/ 발음이 /ɪ/→/ɪ/ 발음 오류에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역 방향의 /ɪ/←/ɪ/인가를 밝히려고 한다. 만약 이 실험의 결과가 /ɪ/→/ɪ/현상이 /ɪ/→/ɪ/에 뒤따라 발생하는 오류이고 어떤 특정한 환경적 조건하에서만 발생하는 역방향의 /ɪ/←/ɪ/로 밝혀지면 과잉교정인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2. 1차 실험

본 실험은 편리상 1차와 2차 실험으로 나눈다. 1차 실험은 이북 화자들을 대상으로 /ㄱ/→/ㄴ/가 과잉교정 현상인 /ㄴ/←/ㄱ/인가를 확인하고 그 환경적 조건을 발견하기 위한 실험이 된다. 2차 실험은 1차 실험 결과를 토대로 남한 화자들에게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실험이 된다.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하여 이북 화자로는 이북으로부터 탈북한지 4, 5년 되는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출신의 화자 17명을 선발하여 이들의 발음을 실험하였으며 남한의 실험 대상자는 서울 표준말을 하는 사람과 전라도, 경상도 화자 각각 2명씩 도합 6명의 발음을 녹음하여 분석하였으며 연령은 20세부터 50세 사이였다. 이들 중 특히 경상도 방언은 이북의 함경도 방언과 역사적으로 친연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주목된다. 이북 화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평안도 화자

- 화자 PA : 안명진(26세). 평양 출생. 평양에서 김정일 군사 대학 졸업.
 화자 PB : 박철진(29세). 평양 출생. 소련 레닌그라드 대학 재학중 망명.
 화자 PC : 한성호(26세). 평양 출생. 모스크바 국립 종합대학 어문학부 5년 졸업.
 화자 PD : 홍금수(28세). 평양 출생. 평양 기계 대학 졸업. 중국유학.
 화자 PF : 최호영(30세). 평양 출생. 평양 상업 대학 졸업.

함경도 화자

- 화자 HA : 최동철(30세). 함경북도 은성군 은성읍 출생.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화자 HB : 김경용(27세). 함경북도 길주군 주남구 출생. 함경도에서 고등학교 졸업.
 화자 HC : 홍진희(28세).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구역 출생. 함흥시에서 고등학교 졸업.
 화자 HE : 이옥금(48세). 함경남도 갑산군 회진면 출생. 고등학교 졸업.
 화자 HF : 이순옥(50세). 함경북도 청진시 출생. 청진시 경제 전문학교 졸업.
 화자 HG : 허광일(43세). 함경북도 김책시 쌍암동 출생. 청진 선박 공업 대학 졸업.

황해도 화자

- 화자 HWA : 최승찬(32세). 개성 출생. 군 공산 대학 졸업.
 화자 HWB : 김광일(41세). 황해북도 사리원 출생. 농업대학졸업.
 화자 HWC : 안영길(42세). 황해남도 웅진군 출생. 군관학교 졸업.
 화자 HWD : 김장호(36세). 황해북도 평산군 출생. 농업 전문대 졸업.
 화자 HWE : 이상운(36세). 황해북도 은파군 출생. 고등중학교 졸업.
 화자 HWF : 신명철(39세). 황해남도 청단군 출생. 고등중학교 졸업.

2.1 실험방법

방법은 이북 화자들과 남한 화자들로 나누어서 실험하였다. 이북 화자들은 8개의 단순 모음을 하나는 고립형으로 또 다른 유형은 단순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구성된 문장형으로 만들었다. 고립형은 무의미한 단어(nonsense words)를 읽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고, 문장형은 평상시의 자연스러운 대화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을 다섯 번씩 반복한 것을 무작위(randomized)로 추출하여 녹음실에서 읽도록 하였으며, 이것을 CSL과 Macintosh의 포먼트 도표(plot formant)로 분석하였다.

<고립 모음>

이 에 애 어 우 아 어 오
기 계 개 그 구 가 거 고

<문장 속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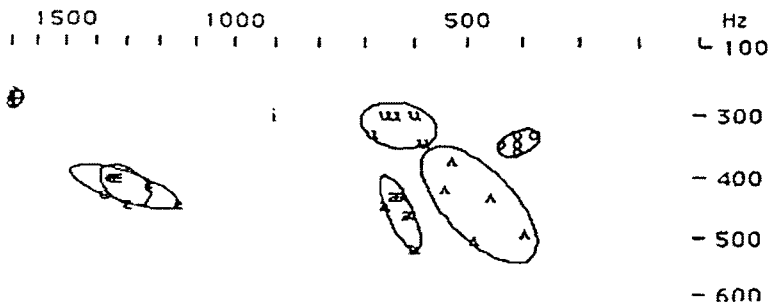
“나는 _____(이)라고 말했지.”

모음	ㅇ	ㄱ
ㅣ (i)	이불	기분
ㅔ (e)	에라(모르겠다)	게임(놀이)
ㅚ (ɛ)	애기	개혁
ㅏ (a)	아이	가방
ㅓ (ʌ)	어뢰	거미
ㅜ (o)	오번	곡식
ㅜ (u)	우수	구별
ㅡ (i)	응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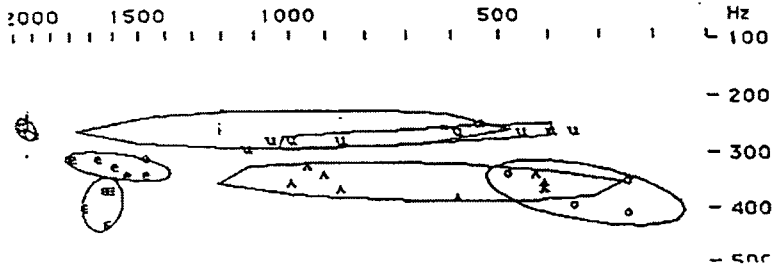
실험을 위한 어휘 선택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와 자음 중에서 동시조음(coarticulation)이 심하여 모음의 음가에 영향을 덜 미치는 연구개 자음(velar consonant)인 'ㄱ' 다음에 오는 모음만을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2.2 실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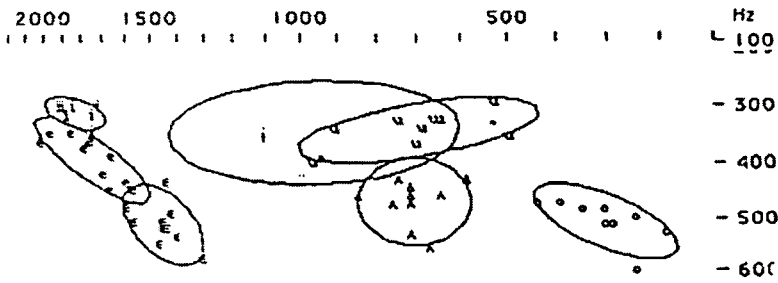
필자의 선행 연구(1996, 1997, 1999a, 1999b.)에서 밝혀진 남북한 모음체계의 근본적 차이는 남한의 서울 모음체계에서는 전설모음(/H/→/h/)에서 융합현상이 일어나는데 반해서, 이북 모음체계에서는 주로 후설 모음들간에 융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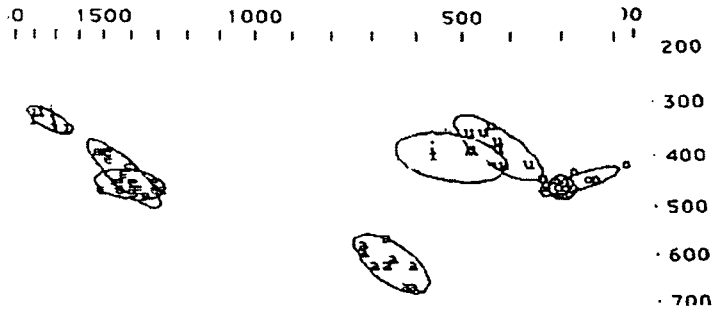
서울말의 모음체계 (SE)



평안방언의 모음체계(PD)



함경 방언의 모음체계 (HB)



황해방언의 모음체계(HWA)

그림 1. 서울 표준말과 이북방언의 모음체계

위의 그림 1을 보면 남북한 모음체계 특징이 한눈에 파악된다. 즉 서울 표준말에서는 후설 모음의 경계가 뚜렷한데 반해서 전설 모음에서는 모음 /ㅓ/와 /ㅏ/의 경계는 심하게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북 방언(평안, 함경, 황해방언)의 모음체계에서는 후설 모음들의 경계가 겹치는 이른바 융합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이 남북한 모음 체계의 상이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이한 가운데서도 남북한 공통적인 것은 그들의 모음체계 내에서 모음들의 배열이 정상적으로 모음/ㅓ/가 모음/ㅏ/ 보다 전설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 모음체계에서는 후설 모음들간의 융합 현상으로 인하여 평안 방언과 황해방언에서는 모음/ㅓ/가 /ㅏ/ 모음 쪽으로 융합하고 모음 /ㅏ/는 /ㅓ/ 모음 쪽으로 융합하고 있다.

또 함경 방언에서는 모음 /i/가 모음 /-/쪽으로, 모음 /-/는 다시 /ɿ/ 모음 방향으로 융합하고 있다. 이 현상을 필자는 Martinet의 “밀어부치기”(push chain)로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로 모음체계의 단순화가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북한 말에서 방언에 따라서 융합현상을 보이는 모음들의 수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모음이 /ɿ/ 모음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만은 모두 같다. 따라서 이북 화자들은 공통적으로 “응시”를 “응시”로, “금지”를 “굼지”로 “굼”을 “굼”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위의 현상과는 반대로 일부 북한 화자들은 “우편”은 ‘으편’로, “추방”은 “츄방”으로 발음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즉 평소에는 /-/→/ɿ/로 발음하던 것이 어느 특정한 어휘에서는 /ɿ/→/-/로 발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음을 할 때 그들의 모음 체계를 분석해 보면 모음 /ɿ/가 /-/ 보다 전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전설에 위치한 모음 /ɿ/가 후설쪽의 모음 /-/로 융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을 보인 화자들은 17명중 10명이었으며 평안도와 황해도 화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되고 함경도 화자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견되었다.

모음 /ɿ/→/-/ 현상을 보인 7명의 모음체계는 다른 10명 화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또 그 원인은 무엇인가의 의문을 풀기 위하여 필자는 이들이 발음한 고립 모음과 문장형태 모음의 포먼트 도표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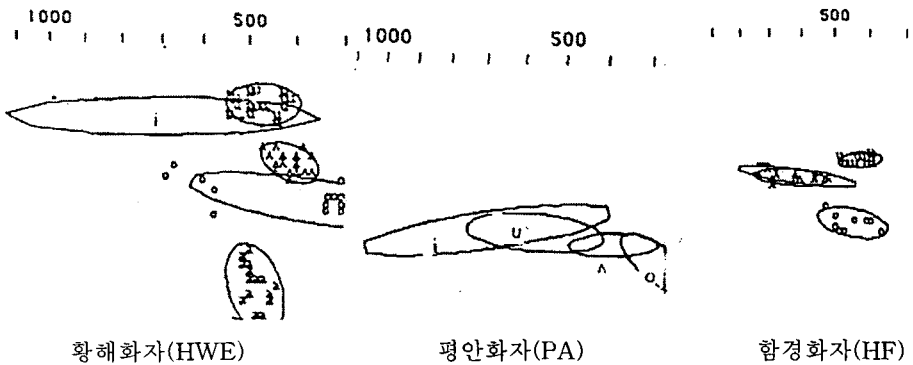


그림 2. 이북 화자의 고립모음 발음
(모음 /-/와 /ɿ/의 배열이 정상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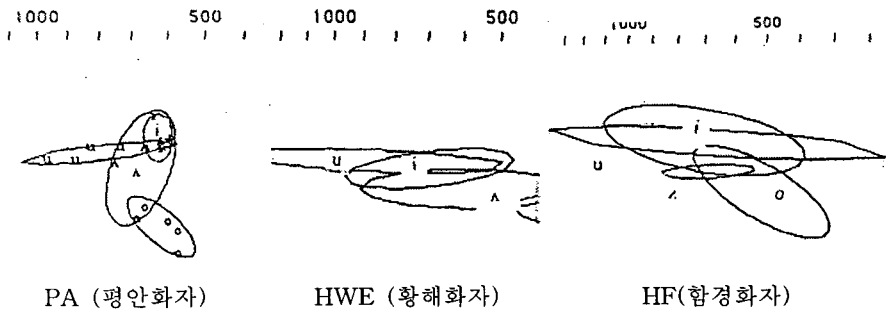


그림 3. 이북 화자의 문장 발음
(모음 /-/와 /ɿ/의 배열이 뒤바뀌어 있음)

그림 2의 HWE와 PA, 그리고 HF의 후설 모음 체계를 보면 모음 /ㅡ/는 모음 /ɿ/보다 전설 쪽에 위치하고 있다. 즉 이들의 고립모음 체계에서는 /ㅡ/와 /ɿ/의 배열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립 모음 체계에서만은 이외에도 모든 17명의 이북 화자에게서 정상적인 모음 배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장형태 발음을 분석한 그림 3의 PA와 HWE 그리고 HF의 후설 모음 체계를 보면(이 외에 /ɿ/→/ㅡ/ 발음 현상을 보인 나머지 7명도 마찬가지로 지임.) 모음 /ɿ/가 모음 /ㅡ/보다 전설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모음 체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배열인 것이다.

왜 화자 HWE, PA와 HF의 모음배열이 고립모음과 문장형태에서 다른 것일까? 필자가 화자들의 고립모음 발음을 실험한 의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의미한 단어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즉 모음을 고립형으로 발음할 때는 단어를 또박또박 강조하듯이 발음하여 자연스러운 점은 없으나 해당 방언 내에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 모음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다른 모음으로 대체 발음하는 것이 쉽게 청취되어 그 방언내에 존재하는 음소의 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화자가 문장 형태의 발음을 할 때에는 평상시의 자연스러운 대화체를 유도하는 데는 유리하나 앞뒤에 오는 자음이 모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당 모음 자체의 순수한 음가를 평가하거나 해당 방언내의 특정 음소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모음의 고립형 발음은 화자가 말하는 방언의 특정 음소 존재여부를 가려낼 수 있으며 모음체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필자의 함경화자의 발음 분석(1997)에서, 이들의 모음체계에는 모음 /ɿ/는 음소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ɿ/를 /ㅡ/로 대체 발음하였는데 이 현상이 문장형에서 보다는 고립모음 형태로 발음할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방언의 모음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립형 발음의 실험이 문장형 실험에 우선하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2의 세 화자의 포먼트 도표에는 후설모음 /ㅡ/와 모음 /ɿ/가 정상적으로 배열되어 있던 것이 그림 3에서와 같이 모음/ɿ/가 모음/ㅡ/보다 전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 방언에서 모음 /ㅡ/와 /ɿ/가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렇게 모음/ㅡ/와 /ɿ/의 정상적 위치가 어떤 특수한 환경적 조건하에서 뒤바뀌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 환경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뒤에 오는 모음이 전설 모음일 때 /ɿ/→/ㅡ/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예) 구이→그이 우비→으비 주위(/위/는 /이/로 발음함) →즈이
 우의(이)→으이 추위(이)→츠이

2. 강세에 관계없이 첫 음절을 짧게 발음할 때는 /ɿ/→/ㅡ/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예) 우수→으스 추모→츠모 무모→므모 부도→브도 후추→흐츠

이북발음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를 지칭하거나 사상을 강조할 때 이외에는 특히 첫 음절을 장모음으로 발음하는 예가 드물다. 예를 들어서 “콩알”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콩”의 길이를 재분 결과 서울의 20대는 0.06610 m/sec이었으나, 북한 화자의 경우는 0.02920 m/sec으로 거의 1/3 길이로 짧았다. 그러므로 이북 화자들이 모음 /ɿ/를 짧게 발음할 때

에는 거의 /-/로 발음된다. 3. 2 음절 어휘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올 때 /-/→-/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예) 구별→그별 우편→우편 우직→우직 주연→즈연 추방→츠방 후방→호방

위의 세 가지 환경적 조건은 탈북한 지 오래 되어 서울말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위 조건의 1번은 앞에 오는 후설모음이 뒤따라오는 전설모음 /l/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 쪽으로 끌려가는 일종의 역행동화(regressive assimilation)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번과 3번은 첫 음절의 길이가 짧거나 혹은 강세가 오지 않아서 첫 음절 모음의 두드러짐(prominence)이 약화되는 일종의 모음 축소(vowel reduction)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가장 쉽게 발음되는 것이 영어의 /ə/와 비슷한 우리의 /-/ 모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되어 발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차 실험에서 이북 방언의 융합 현상으로 유발되는 모음 /-/→/ɪ/의 발음 실수는 후속적인 /-/→-/의 실수를 발생하게 되며 이 현상은 앞에서 제시된 조건하에서만 발생하는 조건을 만족시킴으로 과잉교정인 /-←/ɪ/으로 결정 짓는다.

3. 2차 실험

1차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 화자

화자 SA: 김상근 (20세). 서울 출생. 홍익대학교 일학년 재학.

화자 SB: 장인용 (21세). 인천 출생. 홍익대학교 일학년 재학.

경상도 화자

화자 KA: 김창석 (21세). 경북 대구 출생. 홍대 일학년 재학.

화자 KB: 박태희 (24세). 경북 대구 출생. 홍대 4학년 재학.

전라도 화자

화자 CA: 원동민 (20세). 전북 전주 출생. 홍대 일학년 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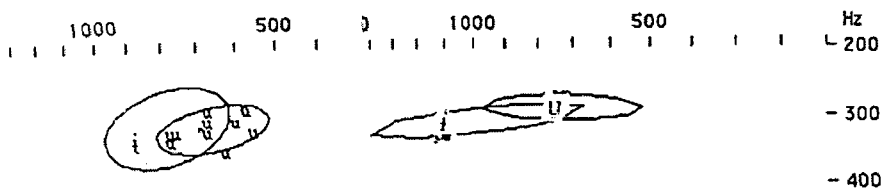
화자 CB: 이세오 (19세). 전남 완도 출생. 홍대 일학년 재학.

3.1 실험 방법

남한 화자들을 위한 실험은 이북화자들의 발음에서 발견된 모음 /-←/ɪ/의 과잉교정 현상이 남한 화자들의 발음에서도 나타나는가를 발견하기 위한 보조적인 실험이다. 그러므로 2차 실험에서는 1차 실험에서 이북 화자들이 /-←/ɪ/ 현상을 보였던 단어들만을 실험 단어로 선택하였다. 이들 단어들은 “우수, 구별, 응시, 금지”의 네 단어들로 이것을 문장형태인 “나는 _____ 라고 말했어.”에 넣어서 다섯 번씩 읽도록 하였으며 이것을 분석하였다.

3.2 실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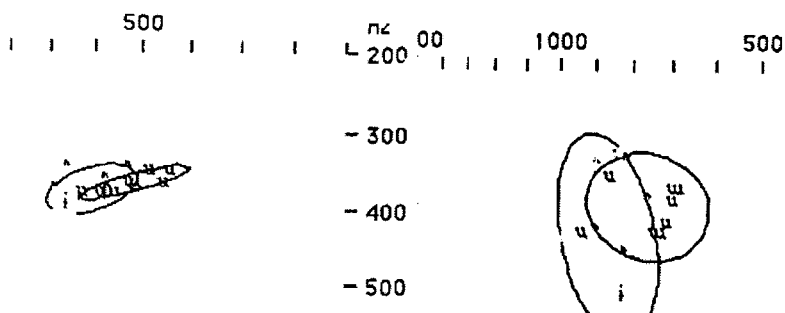
실험 결과 나타난 화자별 포먼트 도표는 다음과 같다.



화자 SA (서울화자)

화자 SB (서울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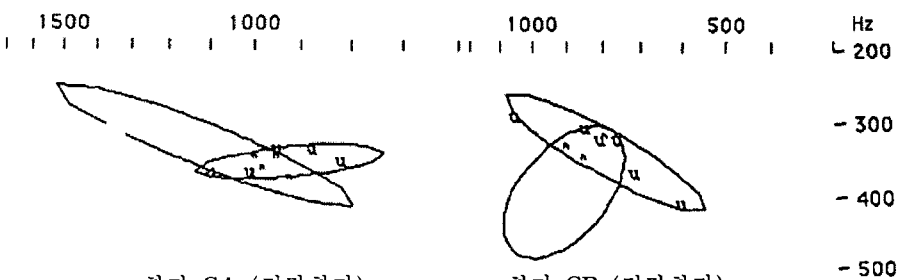
그림 4. 서울 화자의 모음 /ㅏ/와 /ㅑ/의 배열 관계(문장 발음 모음)



화자 KA (경상화자)

화자 KB (경상화자)

그림 5. 경상도 화자의 모음 /ㅏ/와 /ㅑ/의 배열관계(문장 발음 모음)



화자 CA (전라화자)

화자 CB (전라화자)

그림 6. 전라도 화자들의 모음 /ㅏ/와 /ㅑ/의 배열(문장 발음 모음)

위의 그림 4, 그림 5와 그림 6을 보면 서울 표준말 화자나 경상도와 전라도 화자의 문장 형태에서의 모음 /ㅏ/와 /ㅑ/의 배열은 정상적으로 모음 /ㅏ/가 /ㅑ/보다 전설에 위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같은 낱말을 가지고 실험한 이북 방언화자의 발음에서는 모음 /ㅑ/가 모음 /ㅏ/보다 전설에 위치하는 비정상적인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남한 방언에서는 두 모음의 위치가 바뀌지 않음을 보여 준다.

특히 남한 화자들에게 사용한 실험 단어는 바로 이북 화자들이 과잉교정 현상을 보인 해당 낱말이기 때문에 남한 화자들은 이북 화자들이 과잉교정 현상을 보인 같은 조건하에

서는 과잉교정을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남한 화자들이 북한 화자들과는 달리 /-/←/ㅌ/의 과잉교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과잉교정을 일으키는 전제조건인 /-/->/ㅌ/의 융합 현상을 남한의 모음체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점은 바로 남북한 모음체계의 각기 다른 특성과 연결되는데, 앞서 그림 1에서와 같이 북한의 세 지역 방언에서는 후설 모음 융합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에, 남한의 서울말에서는 후설 모음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필자의 실험(1999a)에서 확인된바 있다. 서울 표준말 이외에 남한의 경상 방언과 전라 방언에서도 후설 모음 융합 현상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지역 화자들의 해당 방언의 모음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고립 모음 발음을 실험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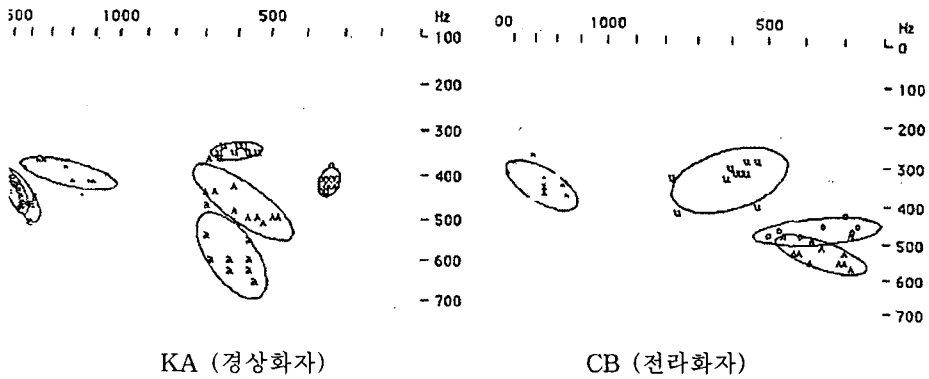


그림 7. 경상도 화자와 전라도 화자의 모음 /-/와 /ㅌ/의 배열 (고립모음)

위의 그림 7을 보면 경상도 화자 KA의 고립 모음 형태 발음에서 모음 /-/와 모음 /ㅌ/는 융합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라도 화자 CB의 고립 모음 발음에서도 모음 /-/와 /ㅌ/는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서 융합을 일으키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모음 /-/와 /ㅌ/의 배열도 정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의 서울 표준말에서 모음 /-/와 /ㅌ/의 융합 현상이 없음이 밝혀졌듯이 그림 7에서는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에서도 후설 모음 /-/와 /ㅌ/의 융합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남한의 후설 모음체계에서는 과잉교정의 전제 조건인 모음 /-/가 모음/ㅌ/로 융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모음 /ㅌ/를 모음/-/로 발음하는 역방향의 과잉교정은 어떠한 경우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그러나 북한의 방언에서는 평안도와 함경도, 그리고 황해도 공통적으로 모음 /-/가 모음 /ㅌ/ 방향으로 융합하기 때문에 이북 화자들은 모음 /-/를 모음 /ㅌ/로 잘못 발음하는 실수가 선행되고(/-/->/ㅌ/) 그 후속적 결과로 역방향인 모음 /ㅌ/를 /-/로 잘못 발음하는 과잉교정(/-/←/ㅌ/)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북 방언에서 발생하는 모음 /-/←/ㅌ/의 과잉교정 현상은 남한의 서울 표준말이나 그 외의 방언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남북한의 후설 모음의 체계의 상이성 때문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4. 결 론

이 실험에서는 이북 방언에서 모음 /ɾ/가 /r/로 발음되는 과잉교정 현상을 실험 음성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실험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r/←/ɾ/가 /r/→/ɾ/발음 현상의 후속적인 현상인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첫째로 이 현상이 과잉교정 현상인가, 둘째로 이러한 과잉교정을 발생시키는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로 이 과잉교정 현상이 남한 지역의 서울 표준말과 방언에서도 발견되는가를 실험의 목표로 삼았다.

실험 방법은 최근 3, 4년간 이북의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로부터 망명한 17명의 탈북자들의 발음을 녹음하여 분석하였고, 남한 화자들로는 서울 표준말 화자와 경상도 화자, 전라도 화자, 각각 2명씩 모두 6명을 선발하여 이북 화자들 발음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같은 종류의 과잉교정이 발생하는가를 고찰하였다.

이 실험에서 이북 화자들의 경우, 후설 모음의 융합 현상으로 모음 /r/→/ɾ/의 발음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속적 실수인 모음 /r/←/ɾ/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 발음 오류는 세 가지의 조건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이 실험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이 현상은 과잉교정인 /r/←/ɾ/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모음체계에서 /r/→/ɾ/ 융합 현상이 없는 남한의 표준말과 경상도, 전라도 방언에서는 과잉교정의 전제 조건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이북 화자들의 경우처럼 /r/←/ɾ/의 과잉교정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참 고 문 헌

- 강순경. 1995. "표준말과 문화어의 장단 모음 분석," 동서문화연구, 제3집, 홍익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 _____. 1996. "남북한의 모음분석," 어학연구 3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 1997.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 어학연구 33(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 1999a. "북한 후설 모음의 융합 현상," 음성과학 5(2), 한국 음성 과학회.
- _____. 1999b. "황해 방언의 모음체계," 언어 24(3). 한국 언어학회.
- 고도홍, 1997. "Mieko Han의 한국어 음성학 연구," 음성과학 1, 한국 음성과학회.
- 곽충구. 1994. "북한 방언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인문과학 10,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구희산, 1998. "모음 길이에 미치는 자음 환경의 영향," 음성과학 4(1), 한국음성과학회.
- 김무식. 1986. "경상도 방언 /ɾ/와 /r/모음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문학과 언어연구 33, 문학과 언어연구회.
- 박희석, 1997. "한국인과 미국인의 영어 모음 길이 비교 연구," 음성과학 2, 한국 음성과학회
- Halle, Morris & William J. Idsardi. 1997. "R, Hypercorrection, and the Elsewhere Condition" Roca I., ed., *Derivations and Constraints in Phonology*. pp. 331-348. Oxford: Clarendon Press.
- Kent, Ray D. & Charles Read. 1992. *The Acoustic Analysis of Speech*. San Diego: Singular Publishing Group, INC.
- Martinet, André. 1970. "Phonetics and Linguistic Evolution," Bertil Malmberg, ed., *Manual of Phonetics* pp. 464-487.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접수일자: '99. 9. 20.
게재결정: '99. 10. 17.

-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우: 121-791)
Tel: (02) 320-1750 (O), 780-7369 (H)
Fax: (02) 320-1154.
e-mail: nkag@wow.hongik.ac.kr.